		<b>보 도 자 료</b>	
		배포일시 2022. 5. 10.(화) /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대도시권광역 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	담 당 자	• 과장 박정호, 사무관 이일보, 주무관 이상화, 성유경 • ☎ (044) 201-5087, 5081, 5084
	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조사평가처	담 당 자	• 처장 이문영, 연구위원 심상우 • ☎ (054) 459-7440, 7441
보 도 일 시		2022년 5월 11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 10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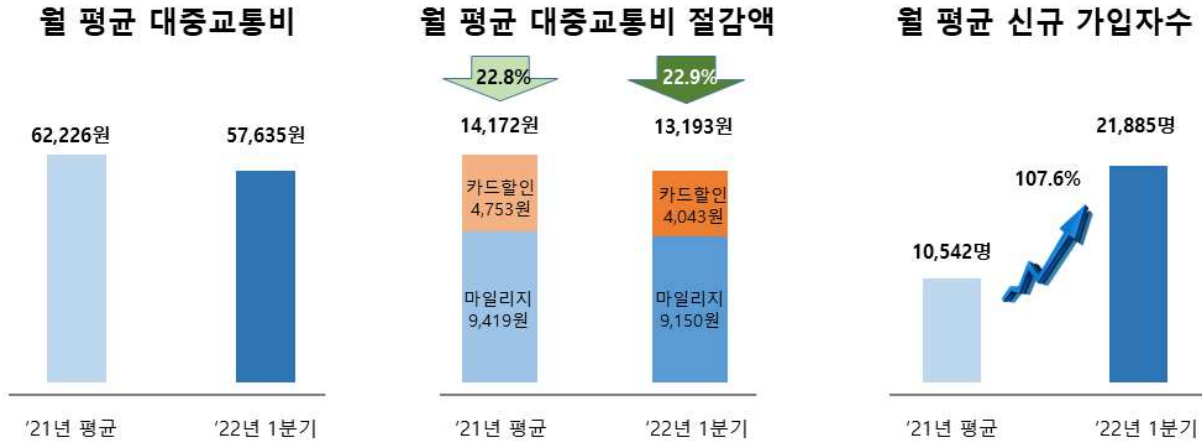
## 알뜰교통카드 이용자, '22년 1분기 대폭 증가

- 월평균 13,193원 절감... 마일리지 9,150원·카드할인 4,043원 혜택
- 신규 이용자 '21년 월평균 1.1만명 → '22년 1분기 2.2만(108% 증가)

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·퇴근을 하는 직장인 A씨는 올해 대중교통 47회(버스 21회, 지하철 26회)를 이용하면서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마일리지 적립(9,150원)과 카드 할인(6,782원)을 통해 대중교통비 67,817원의 23.5%인 15,932원을 절감하였다.('22년 1분기 월평균)

-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위원장 백승근, 이하 대광위)와 한국교통안전공단(이사장 권용복)은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'22년 1분기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.
- 전국 17개 광역시도 158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\* 이용자들은 '22년도 1분기 월 평균 13,193원을 아껴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22.9%를 절감하였으며,
  - \*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·자전거 이동거리에 비례, 마일리지를 지급(20%, 공공 재원)하고 카드사가 추가 할인(약 10%) 제공하여 대중교통비 최대 30% 절감
- 또한,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'22년 1분기에 65,656명(월 평균 21,885명)이 증가(누계 35.6만명)하였고, 전년도 월 평균 10,542명 대비 대폭 증가(108%)한 것으로 나타났다.

-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'22.1분기에 대중교통을 37.5회 이용하고, 57,635원의 요금을 지출하였으며, 13,193원(마일리지 적립 9,150원, 카드 할인 4,043원)의 혜택을 받아 교통비 지출액의 22.9%를 절감하였다.



- 알뜰교통카드 이용자가 대폭 확대된 것은 '21년 8월부터 예산부족으로 신규가입이 중단된 서울시의 신규가입이 '22년 1월부터 재개되었으며, 참여 지자체가 22년부터 137개에서 158개 시·군·구로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었다.

\* 22년 신규 참여 지자체(21개) : 서산·당진·논산·공주·보령·홍성·예산·부여·태안·서천·금산·계룡·청양(충남 13개), 여수·목포·해남(전남), 구미·상주(경북), 사천·함안(경남), 강릉(강원)

-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박정호 광역교통경제과장은 “국민의 교통비 절약 및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이 '22년 1분기에 이용자가 대폭 증가하는 성과가 나타났다”면서,
  - “'22년 2분기 이후에도 참여지역 확대 등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 이일보 사무관(☎ 044-201-508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